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9월 3일(금)

---(음력 7월 27일)---

Пятница

3 сентября 2021г.

№ 34 (1195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9월 3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 여러분!

1945년 9월 3일은 인류 역사상 특별한 날입니다.

이날 피비린내 나는 대규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 전쟁의 마지막 전투가 사할린과 쿠릴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소비에트 병사들이 이 땅을 해방시키기 위해 용맹과 불굴의 정신을 드러냈습니다.

안톤 부유클리, 레오니드 스미르니흐, 니콜라이 율코브를 비롯한 다른 많은 영웅들이 우리 사할린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는 차세대를 위해 이들에 대한 기억을 보존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도하는 9월3일은 러시아의 군사적 영광의 날인 만큼 중요합니다.

바로 해방 영웅들의 공적으로 지금의 사할린주가 형성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사할린주 형성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는 근원을 기억하게 하고, 전쟁과 평화의 시기에 우리의 존경하는 참전 용사들의 용맹스런 공로에 감사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이전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는 자신있게 앞으로 나가며, 사할린에서의 삶이 더욱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새로운 성공과 강건함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을 축하드립니다!

사할린 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기념 제한 방식으로 개최

사할린에서 올해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일 기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통제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의 참석자들과 함께 가리게 된다. 올해 광장에서 군인 행진에는 유·청소년 군관학교 생도와 사관생도들이 참가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되고, 군 차량 행진도 없으며 팬데믹으로 불꽃놀이 축제도 취소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슬라와(영예)> 광장에는 참석자들을 위한 50석만 배치되는 데 여기에 참전용사와 전쟁 시절의 아이들, 사회 활동가, 연방 및 지역 언론 대표들이 자리하게 된다. 한편 행사는 실시간으로 'OTB-사할린'방송 중계와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다.

소비자보호감독청은 이미 야외에서 50명 이상 참가하는 행사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린 것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사할린주에서는 전염병 확산 상황의 안정화와 백신 접종 속도가 높아지는 덕분에 방역 지침이 더욱 완화되고 있다. 연방기관들이 개최하는 행사 참석자 모두가 백신 접종자들이어야 하는 것, 또는 참석일 3일 전에 코로나 19 검진 음성판정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만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

사할린주에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사할린주정부 자료에서)

<극동의 승리> 행사 사할린에서 개최

8월 31일 사할린주 전 지역에서 '극동의 승리' 애국 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행사의 일환으로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으로 붉은 줄무늬 리본을 나눈다. 이 행사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가 유럽 파시즘의 패배만 아니라 극동지역에서 일본 제국주의 팽창의 패배와 러시아의 전 영토 보전을 상기시킨다.

리본 제작은 소비에트 병사 1백80만

명에게 수여된 '일본에 대한 승리' 메달 끈의 모양에서 가져와 만들어졌는데 이 붉은 줄무늬 리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격전지였던 극동지역 승리의 국민적 상징이자,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다. 청년 사업청의 지원으로 리본 나누기 행사가 9월 3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과 방문객 2만5천명 이상에게 승리의 상징을 나누어줄 예정이다.

단신

블라디보스토크, 제6차 동방경제 포럼 개최

9월2일 - 4일까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6차 동방경제포럼이 개최된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포럼에 직접 참석해 극동개발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올해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행사장과 화상회의를 결합해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들에서 약 4천 명이 참석하며, 한국에서는 홍남기 부총리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고, 러시아 대사관의 이석배 대사가 한국 측 대표로 참석한다.

사할린과 쿠릴의 근로 기관들에서 백신접종 여부 점검 취소

사할린주 근로 기관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점검이 취소되었다. 주지사는 지역에서 전염병 확산 상황의 호전과 관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현재까지 사할린주 주민들의 코로나 19의 면역률은 53%나 형성되었다.

7월 백신 접종 촉진 지침 이후 기업의 고용주들은 벌금과 소송을 걱정하며 백신 접종을 안 한 직원을 정직시켰었다. 많은 사할린 주민들이 직장에서 근무 정직 또는 정직 당할 뻔한 상황을 전했다.

4천3백만 여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일시 지원금

8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연금 수급자들에게 일시 지원금' 지급에 대한 령에 서명 했다. 이에 4천3백만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일시불로 1만 루블리를 지원하는 가운데 고령의 국민으로서 연금 수급자, 장애인, 부양자의 사망으로 연금을 받는 가족에게 지급한다. 일시 지원금은 9월2일 목요일에 은행카드로 연금을 수령하는 3천70만 명의 국민에게 지급되었으며, 우체국이나 연금 지급자를 통해 집에서 연금을 받는 1천270만 명의 국민에게는 연금을 받을 때 일시 지원금도 같이 지급된다.

자녀가 있는 사할린의 가정에 총 6억 9천만 루블리 지급

러시아 연방 연금펀드 사할린 지부가 만 6세 - 만 18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1만 루블리의 일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 공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18세 - 23세까지 장애인 또는 건강상 장애가 있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도 일시 지원금의 권리가 있다.

6만9천182명의 자녀들에 대한 일시금 지급안이 채택된 가운데 9월1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를 위한 지원금은 총 6억9천만 루블리가 넘는다. 사할린과 쿠릴 주민들은 8월2일부터 일시 지원금을 받기 시작했으며 일시 지원금은 모든 결제 시스템의 은행카드로 지급된다.

새고려신문

2021년 하반기 신문 구독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 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91루블리 56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제1부지사, 사할린한인사회계 대표들과 간담회 가져

지난 2일(목) 사할린주한인회 회의실에서 사할린 한인사회계 대표 13명이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사할린주 제1부지사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간단히 주한인회 활동을 소개하고 문화센터 관리 문제점을 말하고 협조를 부탁했다. 그리고 재삼 주 향토박물관에 사할린한인들에 대한 상설전시관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또한 이날 사할린 한인청년회에서는 사할린 어르신들을 위한 재할상담센터로 쓸 수 있는 시설 제공도 요청했다. 이날 한국어, 한국 문화 관련 프로그램, 스포츠, 동포 언론기관 지원 등 문제도 논의되었다.

세르게이 바이다코브 제1부지사는 일부 문제해결에 적극 협력해보겠다고 하고 현재 사할린주의 예산이 적자 예산으로서 일부 문제는 추진하지 못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주 한인 협회를 포함해 사할린 한인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다며 지역 정부와도 잘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국립대학교 대학생들,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학업 진행

올해 사할린 국립대학교의 학생으로는 1천50여명이 되었다. 올해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언어학, 사범교육 방면의 일본어, 영어, 한국어, 체육이다.

사할린 국립대학의 대학생들은 새학기를 원격으로 시작했다. 새로운 시행 규정은 2학년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강의는 원격으로 하고 실질 연습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학년의 경우 대학 적응기를 거치고 대학 환경에 적응하도록 직접 강의실에서 수강하게 된다.

대학생들에게 좋은 소식은 수강 기간 동안 코로나19 PCR(피씨알) 검사를 받지 않아도 때때, 백신 접종도 강요하지 않고 결정은 자의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런 가운데 교직원 70%가 자발적으로 백신을 접종했으나 학생들의 접종률은 아직 낮은 편이다.

[기고]

감염병 시대 모국과의 문화·교육적 단절을 넘어서기 위한 작은 제안

교육원에 부임한 그해 그달,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의 세계적인 판데믹으로 사할린과 한국 간 각종 교류가 멈췄다. 11월부터 비행기가 한 차례 뺏지만 집단적인 국경 이동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다.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는 그 전까지 매우 활발했다고 알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단절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느낌이 든다.

2021년 봄에 아동예술학교, 한인문화센터 등과 교류하는 한국내 문화단체들에 전화를 걸어 원격 교류나 연수 등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담당자의 대답은 이러했다.

"아, 사할린이세요? 그렇죠, 예전엔 교류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런 원격 연수나 교육 등의 계획은 없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영상 자료 등은 보내드릴 수 있어요."

활발했던 교류는 까마득한 옛날이 된 것 같았다.

2020년에는 어느 한국어 채택학교에서 9월 1일 신입생 입학식에 교육원장을 초대한 적이 있다. 교장 선생님은 "교류가 재개되면 한국 학생들과 우리 학생들의 왕래를 계속 하자"는 뜻의 말씀을 하

셨다. 그러나 올해 9월 1일은 아무 초청이 없었다. 6개의 학교가 한국어를 가르치지만 교육적인 인적 교류나 왕래 등에 관하여 이미 기대를 접은 것이다. 특히나 한국의 방역 시스템이나 지침 하에서 모든 교류 참가자들의 격리 등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주대학교에서 원격으로 실시하는 재외동포학생의 국내교육과정, 동서대학교의 사할린 인재 양성 프로그램(장학생 선발)에 지원자가 없다. 사할린 국립대와 부산대 간의 교환학생도 작년 3월 조기 복귀하여 참가 중인 학생이 아무도 없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절의 상황에서, 교류 단절에 의한 무기력을 달래거나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공주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재외동포 학생 국내교육과정은 직접 한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사할린에서 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더라도 교류가 재개되었을 때, 약속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즘의 원격교육은 초기의 지루함과 달리 재미있는 교육방법을

도입하여 유익하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다.

둘째, 특히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분들은 재외동포재단에서 주관하는 한글학교 교사 연수, 한국어재단 등의 교원 연수에 참여하면, 재미있고 유익한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계적인 한국어 교사 네트워크에도 참가하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째, 오랜 단절 속에서 한국어나 한국 전통예술 등 분야에서 부족하다고 여기는 부분, 교류가 필요한 부분, 역량과 실력을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국교육원을 통하여 국내의 관련 기관과 원격으로 연결하여 필요한 연수나 만남을 가질 수 있다. 실제 한국의 국악신문 대표님은 한국교육원에 원격 환경을 만들어 필요한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사할린 한인의 문화-교육적 수요가 모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교육원 교실 외에 한인회와 협의하여 문화센터 강당, 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교육원장은 공무상 국내 출장을 90일에 한번 다녀와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국, 사할린 한인사회의 문화, 교육

사할린한국교육원 이병일 원장

적 교류의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 품이 드는 일이지만 꼭 필요한 물품을 들여 올 수도 있고 관련 담당자들을 만나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계속되는 단절의 두려움은 서로 잊혀지는 것이다.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제각기 다른 길을 가게 한다는 점이다. 온라인 만남과 교류들은 세계 각지에 또는 모국에, 서로를 지향하고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확인 작업이다. 언젠가 다시 오고 감이 가능할 때, 설령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직접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데 자연스러운 느낌을 줄 것이다.

한국교육원도 열심히 홍보를 하겠지만, 관심있는 사할린 동포분들과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한국교육원에 온라인 혹은 원격 교육, 유학 등의 정보를 문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필요한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긴 단절 기간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참고 : 한국교육원 전화 50 56 96, 홈페이지 웹사이트 : www.sakhalinedu.com

이 모 저 모

유즈노사할린스크 공원에서 700장의 놀이기구 이용권을 어린이들에게

8월 28일 가가린 문화·휴식공원에서 '햇살 가득한 날에 미소짓자' 전 러시아 기획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사가 펼쳐졌다. 행사가 10년 넘게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사의 핵심은 간단하다. 8월의 마지막 휴일에 러시아 각 공원에 <햇살 저금통>이 설치되는데 누구든 놀이기구 이용권을 구매해 이 저금통에 넣으면 이날 마지막에 모아진 이용권을 계산하여 2배로 늘려 사회봉사단체를 통해 빈곤층 가정에 이용권을 전달하는 것이다.

올해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 관리부가 행사 방식을 변경한 가운데 놀이기구 이용권은 이날 모두 배부됐다. 축제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행사장에는 등록처가 설치돼 있어 여기서 다자녀 가족 증명서를 제시하면 놀이공원 이용권을 받을 수 있었다. 총 700장의 이용권이 배포된 가운데 어린이들은 7개의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동시에 모든 방문자들을 위해 무료 회전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창작 활동교실, 보드 및 퍼즐게임을 진행하고, 공원 주요 무대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예술단들이 공연을 펼쳤다.

700 билетов на аттракционы раздали детя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м парке

28 августа в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Гагарина прошла акция "Улыбнёмся солнечному дню", прошедшая в рамках одноименного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проекта. Акция проводится уже более 10 лет. Суть ее проста: в последний выходной августа в парках Росси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солнечные копилки". Любый желающий может купить билет на аттракцион и опустить в такую копилку, в конце дня количество собранных билетов подсчитывают, удваивают и отдают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лужбы нуждающимся семьям.

В этом году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арк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зменила формат проведения. Билеты на аттракционы раздавались в этот же день.

На площадке картодрома во время проведения праздничного концерта был установлен стол регистрации, где при предъявлении документа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могли приобрести сертификат на аттракционы парка.

Всего было роздано около 700 билетов. Детям предста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кататься на се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аттракционах.

Помимо бесплатных каруселей для всех гостей работали площадки с творчески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настольными играми и головоломками. На главной сцене парка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сообщает городской парк.

<2021 - 군대>포럼 '푸쉬스트' 간이 비행장에서 개최

8월 28일(토) <2021 - 군대> 군사기술 포럼의 주요 행사장인 코르사코브 지역 '푸쉬스트' 간이 비행장에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방문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현대적 무기 유형과 군장비, 탱크 T-80, 자주포, '그라드' 다중 발사 로켓시스템 등 여러 전투 장비들을 관람했다. 사할린 <2021 - 군대> 군사기술 포럼 진행 중 처음으로 올해 초 사할린의 영공 보호를 위한 전투 임무를 맡은 '트라이움프(승리)' S - 400 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선보였다.

오락 공연 프로그램으로 사할린 필하모니 연주단, '라두가(무지개)' 민속문화센터, 유즈노사할린스크 수비대 군 관악대의 공연이 펼쳐졌다.

포럼 방문객을 위해 극한의 생존 조건에서 생존 훈련, 응급 의료조치의 현상이 펼쳐지고, 특별 군 견학 행사장에는 특수임무를 맡은 개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

군 교관들은 '사할린스키 루베쥬(사할린 영역)' 극한의 달리기 경주 진행을 위해 33개의 장애물을 설치한 6km의 코스를 준비했다. 이에 자신의 힘과 지구력을 시험하기로 한 500여 명이 달리기 경주에 참가하여 상당히 어려운 코스를 이겨냈다.

모든 사람들이 '파트리오토(애국)'공원의 시설을 관람하

고, 사륜 오토바이를 타보며, 공기총을 쏘보고, 잠시 유격병 체험도 해보며, '유격대 마을' 분위기에 젖어두고, 야전 조리대에서 준비된 병사들의 밥도 맛볼 수 있었다고 동방 군사 지구 의 홍보실이 전했다.

На «Пушистом» состоялся форум "Армия-2021"

28 августа основную площадку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Армия-2021», расположенную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етило более 5 тысяч человек. Гости форума увидели современные образцы вооружения и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такие как танк Т-80, самоход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гаубицы, реактивные си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Град" и множество другой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Впервые в ход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Армия-2021" на Сахалине был представлен зенитно-ракетный комплекс С-400 "Триумф", заступивший на боевое дежурство по охране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нач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С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й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ой выступили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ЦНК "Радуга" и военный духовой оркестр Южно-Сахалинского гарнизона.

Также для гостей форума были развернуты места по обучению выживанию в экстрем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оказанию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на специальной площадке военные кинологи показали различные приёмы со служебными собаками.

Военные инструктора подготовили шестикилометровую трассу с 33 препятствия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забега "Сахалинский рубеж". В забег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решившие проверить свои силы и выносливость, преодолев столь сложный маршрут.

Любый желающий мог посетить объекты парка "Патриот", прокатиться на квадроцикле, пострелять из пневмат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ненадолго почувствовать себя партизаном, погрузившись в атмосферу "Партизанской деревни", и ответить только что приготовленной в полевой кухне солдатской каш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8면에 계속)

사할린, 새 학년도 시작



9월 1일 러시아에서 새 학년이 시작되었다. 이날 사할린의 모든 학교에서 지식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 유즈노사할린스크 시 동양감나지아에서 84명의 1학년생들이 공부를 시작했다. 이 김나지아에서는 2가지 외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하나는 영어, 또 다른 하나는 동양어(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중 하나)다.

(이예식 기자의 글과 사진)

사할린주 한인협회 활동, 올해 영주귀국 현황 등에 대해 보고

지난 2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 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소집되었다. 운영위원 28명 중 회의에는 17명이 참가했다. 회의에서는 주 한인협회 사업 보고, 2021년 영주귀국사업 관련 영상 회의(주최 한국 외교부)에 대한 보고와 러시아 국가두마 게오르기 카를로브 의원(사할린 대표)과 만남이 있었다.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지난 6월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으로 인해 사할린주에서 50명 이상 행사가 제한되어 해마다 하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연기되었다고 보고

했다. 이 행사는 일단 9월 18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상황이 그럼에도 주 한인협회는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7월에 〈오스트로와〉연방 청년포럼 일환으로 〈뽀세〉축제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전례대로 사할린 청소년 역사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마무리했다. 그리고 6월 말부터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공동으로 사할린동포 1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주한인협회 정관 변경, 수정 사항에 관한 작업도 집중적으로 해왔다. 7-8월에는 사망한 사할린동포 1세 부모들의 자녀 재확인 명단 조사도 진행했다. 또한 주한인협회가 주 여성포럼에 참가했는데 〈공공외교에 대한 여성의 견해〉란 부문에서 사할린 한인동포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고 박 회장이 전했다.

추가 보고를 홈스크한인회 이진선 부회장과 사할린한인청년회 이 세르게이 회장이 하였다. 홈스크 현지에서 〈뽀세〉축제를 추진해온 이진선 부회장은 축제 참가자들의 뜨겁고 긍정적인 반응과 또한 지역 행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음을 강조했다. 이 세르게이 회장은 청년단체가 〈뽀세〉축제를 도왔고, 사할린청소년역사캠프도 잘 진행되었다고 전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시 이런 캠프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이 모여졌으며, 올해 처음으로 캠프 진행에 주정부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둘째 의제로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은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위원회 회의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올해부터 영주귀국 사업은 〈사할린동포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니 사할린에서 모든 서류접수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 한국영사출장소를 통해 하겠다고 박 회장이 강조했다. 선정결과 통보도 역시 외교공관을 통해 9월에 할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 영주귀국 지원사업에 관한 온라인 회의가 한국 외교부 주최로 8월 19일 진행되었고, 회의에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를 비롯해 한국 정부 부처(법무부, 국토교통부 등)관계자들과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이

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영주귀국자들을 회의에는 전국 사할린 귀국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귀국 대상자 선정 및 순서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미 전해진 바와 같이 올해 영주귀국에 총 688세대(1079명)가 신청했으며 신규 신청자 30세대가 접수된 가운데 9세대에서 문제가 발견되었다. 그중 6세대가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이들이 갈 수 있도록 한인협회 측에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박 회장이 전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영주귀국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도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가능 대상 인원은 총 350명으로 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러시아 국가두마 게오르기 카를로브 의원과 만남을 가졌다. 그는 국가두마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소개하고 사할린 한인단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카를로브 의원은 국가두마 의원으로서 이날 사할린주 한인협회(회장 박순옥), 임 유리 주한인협회 임원, 조 카리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 이 세르게이 사할린 한인청년회 회장, 김 아르쎀 사할린한인청년회 임원, 이태출(이태준) 코르사코브 한인회 회장, 유성철 사업가(자선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이날 사할린주 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은 사할린주 한인협회 활동을 열심히 돕는 여성분들에게 꽃다발을 선사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온라인으로 시행된 '2021 CIS지역 한국어교사 연수' 수료식

다각적 교사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총 34명 연수 수료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8.27(금), 고려인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2021 CIS지역 한국어교사 연수'의 수료식을 마쳤다.

이번 연수의 수료생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3개국에서 한글학교 교사 34명으로, 7월 27일부터 5주간 매일 온라인을 통해, 한국어 능력 제고, 한국어 교수법, 한국 역사문화 특강, 비대면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였다.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 시행된 본 연수에서는 매주 토요일 비대면 한국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전통공예품 만들기, 한국요리 등 실습 프로그램이 연수생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수료생 대표로 소감발표를 한 임 이리나(러시아, 불고그라드 세종센터한글학교) 교사는 "한국어 수업분만 아니라 문화, 역사, 교수법 등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토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문화 체험으로 마치 온라인으로 한국 여행을 한 것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이번 수료식에서 "한글학교에 현직인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글과 우리 문화 교육과 확산에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울산, 음악과 미술로 맞는 '한-러 지방포럼'

문화교류 병행

러시아 시향 지휘자 환영만찬 때 공연...시

"동북아오일허브 · 북극항로 활성화 지원 받을 것"

오는 11월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을 앞두고 울산시가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차별화된 행사 개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 울산에 대한 러시아의 친밀도 상승을 통해 동북아 오일허브 및 북극항로 활성화와 관련해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겠다는 전략이다.

8월 26일 시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서 시는 울산에 대한 러시아의 친밀도 상승을 위해 2가지 부대행사를 계획 중이다.시는 우선 1일차인 11월 3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환영만찬으로 '울-러 화합의 밤'을 개최한다.

이 행사가 의미 있는 건 현재 울산시립교향악단의 지휘자가 바로 러시아인이기 때문. 지난 2018년 2월부터 울산시립교향악단을 이끌고있는 '니콜라이 알렉세예프'가 그다.

시 관계자는 "이번 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는 연해주 등 극동관구 11개와 무르만스크주 등 북극 7개 지자체가 참석하게 된다"며 "그런 그들이 먼 이국땅인 대한민국 울산에 와서 자국의 지휘자가 지휘하는 공연을 보게 되면 분명 감동을 느끼지 않겠냐"고 말했다.

러시아인들을 위해 시가 마련한 특별한 부대행사로는 행사기간 내내 울산 전시컨벤션센터 1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러시아 현대미술전'도 있다.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러시아 전문화랑인 '갤러리 까르찌나'에서 가져 온 러시아 현대미술작가 작품 150여 점을 전시하게 되는데 이 역시 포럼에 참석한 러시아인들에게 울산에 대한 친밀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러시아는 울산의

조선업과 관련해 기술 및 자본 투자를 받고 싶어 하고, 울산은 러시아가 보유한 천연가스 등 에너지를 가져 오고 싶어 한다"며 "때문에 이전 한-러 지방협력 포럼과 달리 이번 3차 포럼의 경우 산업수도 울산에서 개최되는 만큼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그 때문에 이번 3차 포럼에서 차별화를 시도하기 위해 울산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특별 부대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울산과 러시아가 친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면 향후 러시아인들이 동북아 오일허브도 적극 활용하게 되고,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북극항로 활성화 사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북극항로가 개통되면 유럽으로 갈 때 엄청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시는 지난 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시장 주재로 시 관련 부서,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 개최 착수 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한편 오는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에는 한국 17개 시·도 지자체장을 비롯해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북극지역 18개 지자체장 등 2개국 35개 지역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극동연방관구는 총 11개로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등이고, 북극지역은 7개로 무르만스크주, 네네츠자치구, 야말로-네네츠자치구 등이다.

(출처: 울산제일일보)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зеркале СМ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 при поддержке Дом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г. Москва), редакции газет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ечерняя Москва» и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гресс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а мира» 1 сентября провели презентацию книги «В зеркале СМИ», посвященной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В Дом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были приглашены дипломаты, активисты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журналист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творческой интеллигенции.



Вип-гости презентации: Ви Мён Чже (слева), Генконсул Пак Хо (4-й слева), ведущий презентации главред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Валентин Чен, Посол Глеб Ивашенц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ъединения репатрир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вон Ген Сек, президент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Джамиль Садыхбеков.

Фото: Эльза Бажора

Экс-посол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2005-2009 годы) Глеб Ивашенцов рассказал о своей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этот период, а также многих эпизодах культур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На презентации выступили Генеральный консул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Пак Хо, министр, советник, директор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Ф Ви Мён Чже, председатель комиссии по информ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е Совета по делам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Москвы Джамиль Садыхбеков, журналист из Ростова-на-Дону Мария Ким.

«В зеркале СМИ» — это сборник материалов международ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журналистов и публикаций газеты «Российские корейцы», посвященной 30-летию установления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СССР/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с участием журналистов ТАСС,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ы», «Вечерней Москвы»,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осо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и, Гильдии межэтнической журналистики, Конгресса этножурналистов России, учёных-корееведов, которая состоялась 28 декабря 2020 года в Москве.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В Пхеньяне завершаю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жилого здания

В столице КНДР завершено возведение корпуса 80-этажного здания, которое должно стать самым высоким жилым объектом Страны чучх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ведется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по созданию жил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10 тысяч семей на юго-востоке Пхеньяна.

Как сообщили официальные СМИ КНДР, новый небоскреб появился в округе Садон Пхеньяна, который стал центром, где строится новый жилой комплекс. О нем лично заявил лидер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Ким Чен Ын. Точная высота здания не сообщается, но известно, что в нем 80 этажей, хотя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остроить только 50. Высота, которая станет главной визитной карточкой нового жилого микрорайона, выше 70-этажного жилого здания на улице Рёмён, появившегося в 2017 г. Хотя новое строение уступает самому высокому объекту КНДР — 105-этажной гостинице Рюгён, последняя так и не была введена в строй полностью.

Как пояснили местные СМИ, в строении есть девять лифтов, а на каждом этаже — по десять квартир.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издания с гордостью подчеркнули, что здание возводилось сверхскоростными темпами, несмотря на изнуряющую 35-градусную жару

этого лета в Корею. В среднем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дного этажа уходило около 16 часов. И это при том, что на высоте рабочие не мог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техникой, а доставлять стройматериалы часто приходилось вручную.

Англоязычное издание NK News, которое специализируется на новостях из КНДР, признало, что с учётом сроков начал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явленная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корость возведения этажей нового небоскрёба скорее всег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Вместе с тем издание напоминает, что КНДР пока так и не смогла завершить две другие ранее разрекламированные крупные стройк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туристическую зону "Вонсан-Кальма"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и центральную клинику в Пхеньяне. Из-за пандемии коронавируса власти КНДР ввели жесткую блокаду своих границ, резко сократив торговлю с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Это, а такж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и стихийные бедствия, негативно сказались на экономике страны, приведя в том числе к перебоям с поставками стройматериалов, часть из которых закупалась за границе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Эхо минувшей войны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начали реализацию совмест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извлечению останков военных, погибших в Корейской войне 1950-53 годов на месте битв в районе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ы,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обороны.

В совместных раскопках на горе Baekseok, где шли ожесточенные бои в 1951 году, участвуют около 6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и 1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ША. Работы продлятся до 16 сентября, сказа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звлеченные останки пройдут процесс идентификации, добав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Совместная операция не только поможет укрепить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между союзниками, но и позволит выполнить наше обещание перед павшими героями доставить их домой», — сказал американский сержант Натан Дон.

Корейская война разразилась в июне 1950 года, когд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держиваемая Советским Союзом, начала боевые действия на юж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ША и 21 другая страна воевали на стороне Южной Кореи под флагом ООН. В боях погибли около 289 000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лдат и 28 445 все еще числятся пропавшими без вести.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тесно работают по извлечению останков погибших с 2000 года, отмет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А РУСКОР

Вакцинировать будут даже нелегальных иностранце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звало всех иностранцев, нелегально находящихся в стране, при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против COVID-19, заявив, что это не приведет к депортации или другим иммиграционным мерам.

Сеул разрешил недокументированным иностранцам, включая тех, кто просрочил визы, получить прививки в том же порядке, как и своим гражданам через проходящ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вакцинации.

«Даже если иностранец с неопределенным статусом будет привакцинирован, это не будет грозить ему задержанием или депортацией, поэтому мы просим их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вакцинации», — сказал на брифинге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ностранец без регистрационного номера может получить временный номер в ближайшем иммиграционном офисе, который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н при записи на вакцинацию.

Недокументированные иностранцы в возрасте до 30 лет, скорее всего, получат вакцину Janssen компании Johnson & Johnson, которой достаточно одной дозы.

ИА РУСКО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США обсудили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К и США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касающиеся возможно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Пхеньяну, и выразили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Север вернется к диалогу.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специаль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ША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 вопросам Сон Ким после состоявшихся 30 августа в Вашингтоне переговоров со специаль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м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о Гю Доком. По словам Сона Кима, стороны обменялись мнениями о ситуации в регионе и путях возобновления переговоров с Пхеньяном. Они подтвердил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делу полной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обсудили области, в которых могут совместно осуществлять программу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а также проекты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продолж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 добавил Сон Ким. В свою очередь,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тметил, что ядерная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является «неотложной», и её необходимо оперативно решать посредством диалога и дипломатии.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внимательно следят за деятельностью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вязанной с её программами создания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 добавил Но Гю Док. Встреча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вух стран в Вашингтоне состоялась через неделю после визита Сона Кима в Сеул.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91 руб. 5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vika131065@mail.ru,
sakhalin.ru

эл.почты
skr@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на 2022 год объёмом 604,4 трлн вон

31 авгус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утвердило бюджет на 2022 год объёмом 604 трлн 400 млрд вон (519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на 8,3% больше бюджета этого года. Рост бюджетных расходов вызван необходимостью поддержать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экономики и сократить разрыв между различными слоями населения. 3 сентября бюджетный законопроект будет представлен на утверждение в Национальное собрание.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а экспансионистская бюджетно-финансовая политика, а расходы на борьбу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увеличатся. Ещё одна цель – повышение финансовой устойчивости в условиях рост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долга с целью сокращения бюджетного дефицита. Южнокорейская экономика находится на пут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благодаря устойчивому экспорту, н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не сбалансировано по секторам экономики, а разрыв в доходах между имущими и неимущим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Существуют также опасения, что недавнее возобновление роста числа инфицированных вирусом COVID-19 приведёт к снижению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потенциально замедляя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Расходы 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социаль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и создание рабочих мест возрастут на 8,5%, на охрану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 на 12,4%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ть не менее 2 млн 110 тыс.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ыплаты 1 трлн 800 млрд вон (1,5 млрд долларов) на компенсацию убытков самозанятым из-за сокращения доходов в связи с пандемией. Будут увеличены затраты на закупку вакцин против COVID-19 и усиление антивирусной защиты. Ожидается, что из-за роста бюджетных расход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долг впервые превысит 1 трлн вон (860 млрд долларов). Отношение долга к ВВП может составить 50,2%,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0,5%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кущим годом. В своём выступлении на заседан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важность сохранения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нынешней агрессивной налогово-бюджетной политики, поскольк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едложило увеличени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бюджета на 8,3%.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отечественная экономика находится в относительно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несмотря на пандемию COVID-19, и она вполне способн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рост по итогам года не менее чем на 4%.

Жители РК получают субсидии д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Субсидии жителям страны, пострадавшим от экономических последствий пандемии COVID-19, планируется выплатить до осеннего праздника урожая и поминовения предков Чхусок, который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этом году 21 сентября. Как сообщил 26 августа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РК Хон Нам Ги, наиболее нуждающиеся получают по 250 тыс. вон (214 долларов). Общий размер выплат составит 11 трлн вон (9,5 млрд долларов). Это часть второг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бюджет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До праздника Чхусок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выплатить не менее 90% субсидий, предназначенных индивидуальным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 и малому бизнес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читает, что в условиях четвёртой волны пандемии помощь должна быть оказана как можно скорее.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отсрочить возврат долгов и выплат по процентам, а также уплату налогов, сборов по социальному страхованию и коммунальных платежей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пандемии,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их финансовое брем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ланирует перед праздником увеличить поставки на рынок основных продуктов питания, чтобы помочь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потребительскую инфляцию. Перед национальными праздниками спрос на ряд продуктов обычно возрастает, поскольку жители страны готовят праздничные блюда для семейных встреч.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ланирования и финансов, поставки будут увеличены на четверть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аздником Чхусок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усилит контроль за наличием основных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проду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яиц и говядины, и выпустит на рынок рис и другие зерновые из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резервов. Чтобы помочь стабилизировать цены на яйца, будет продолжен их импорт. В целях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потребления возобновится программа выдачи скидочных купонов на доставку еды через интернет.

РК запустит в 2022 году лунный орбитальный аппарат

Как сообщили 30 августа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РК, первый отечественный аппарат по исследованию Луны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в октябре этого года. Его запуск планируется на август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с помощью ракеты американской частной аэрокосмической компании Space Exploration Technologies. На орбитальный аппарат будет установлено высокоточная камера, разработанная Национальным управлением по аэронавтике и исследованию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США (НАСА). Она будет собирать данные о поверхности Луны для поддержки программы Artemis, осуществляемо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США. (RKI)

Южная Корея задумалась о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с COVID-19"

Продолжающиеся периодические "волны" COVID-19, которые возникают несмотря на самое строгое соблюдение всех правил и мер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заставили задаться Южной Корею вопросом: "А может изменить отношение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воспринимая его как неизбежность по примеру гриппа и продолжить жить с COVID-19 в обычном режиме?" Официальные влас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К) пока не спешат с подобными смелыми ходами, но под давлением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уже заявили, что "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практику "существования с COVID-19", когда в стране будет вакцинировано не менее 70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ия.

Если выстраивать рейтинг стран и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искренне и добросовестно соблюдают все предписанные властями меры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и карантина, то без сомнения Южная Корея была бы где-то на самых первых местах. В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доминирует общее понимание, что "правила соблюдать надо" и "они придуманы для нашего же блага". Безусловно, есть и "бунтовщики", которые ставят под сомнение достаточно строгие ограничения, но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отклонений минимально. Например,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ейчас крайне сложно увидеть человека без маски. А если кто-то без нее идет, то скорее всего человек либо забыл по рассеянности, либо к нему вскоре подойдут полицейские или сотрудники местных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и вежливо, но твердо потребуют надеть маску.

Подобный подход наблюдается и в случае с ограничением работы разного рода общественных заведений. Да, регулярно в новостных выпусках сообщают о выявленных полицией нелегально работающих заведениях, но опять же это отнюдь не правило, а исключение.

В СМИ "ковидная" тематика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в разряде главных новостей жизни страны. Издания и информагентства РК с большой активностью "бомбардируют" людей подробностями о ситуации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постоянно подчеркивая, что "ситуация продолжает оставаться сложной" и "расслабляться нельзя".

Но несмотря на подобное образцовое поведение и подход, а также титанические усилия властей и медиков COVID-19 не только не уходит из Кореи, но и периодически ставит рекорды. Конкретно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Южной Корее идет четвертая волна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гда число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за сутки иногда превышает 2000 человек, что является самым большим показателем для этой страны.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хотя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по меркам Кореи), но численность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и умирающих при этом невелика. Так, летальность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давно держится ниже уровня в один процент.

Одновременно ряд мер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оторые существенно ограничивают (рестораны, кафе и пр.) или вообще полностью запрещают (бары, дискотеки, караоке и пр.) работу многих заведений, стал сильнейшим ударом дл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не имеющих из-за COVID-19 возможности нормально трудиться уже полтора года.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программы господдержки малого бизнеса банкротства следуют одно за другим.

В результате корейцы стали задумываться над сменой тактики борьбы с COVID-19 или, скорее, над сменой отношения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Если говорить о

сути, то все активнее обсуждае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месте с коронавирусом". Человечество же живет, допустим, вместе с гриппом, не запрещая при этом работы ресторанов и не прекращая полеты в другие страны. Да, грипп – не самая приятная болезнь, но и не такая уж и убийственная, чтобы парализовывать нормальную жизнь. А летальность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стала сопоставима с гриппом. Предлагается точно также относиться к COVID-19. Власти и СМИ должны будут публиковать не статистику новых заболевших за сутки, которая взвинчивает народ, а показатели умерших или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которая куда менее впечатляющая.

Бывш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и один из кандидатов на пост след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РК Ли Нак Ён, в частности, выступил именно с подобной инициативой о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с COVID-19". Данное предложение явно попало на подготовленную почву и вызвало большой отклик. Корейцы уже устали от разного рода ограничений, которые даже при образцовом их соблюдении отнюдь не гарантируют победу над коронавирусом.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экспертов, СМИ и простых людей выступают за "жизнь с COVID-19".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официальные экспер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ка не торопятся с "совместным проживанием с COVID-19", но вынуждены учитывать смену настроений в обществе. На днях директор Агентства по предотвращению и контролю за заболеваниями РК Чон Ын Гён всё же не исключила теоретической возможности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одхода, сказав, что об отмене ограничений и "жизни с COVID-19" можно будет задуматься, когда показатель вакцинации превысит 70 процентов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Нынешнюю волну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РК называют "волной среди непривитых". За период с мая по июль этого года из всех 61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новых зараженных 93 процента составили те, кто не был вакцинирован. Если раньше много тяжелых больных было среди пожилых людей, то теперь их больше среди людей среднего и молодого возраста. А вакцинация, как показывает статистика, позволяет сильно сократить смертность. Если вакцинированный и заражается вновь, то COVID-19 протекает в очень легкой или бессимптомной сфере. Статистика и здесь показывает однозначную картину: за последние несколько недель из 1400 человек, у кого COVID-19 протекает в тяжелой форме, 99 процентов не прошли вакцинацию.

Судя по обещания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жная Корея может начать свою попытку "жизни с COVID-19" достаточно скоро – уже через месяц. Сейчас доля вакцинированных превысила 50 процентов, ожидается, что озвученный порог в 70 процентов будет пройден как раз во второй половине сентября.

Пока же корейцы – что обычные люди, что профессионалы – с большим вниманием наблюдают за тем, как свой эксперимент по "нормальной жизни с COVID-19" ставят другие страны - например Великобритания и Сингапур.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изывает сограждан активно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видя в этом залог победы над COVID-19 или хотя бы превращения данной инфекции в аналог сильного гриппа, с которым можно жить полноценную жизнь без серьез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Г)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огласовали программу помощи молодёжи

26 августа правящая парт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согласовали новую программу помощи молодёжи, включа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ежемесячной субсидии на аренду жилья малообеспеченным представителям молодёжи. Как сообщил журналистам член высшего совета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Ли Дон Хак,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достигнутой договорённостью,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ежемесячно выплачивать по 200 тыс. вон (170 долларов) до одного года тем, чей доход со-

ставляет менее 60% от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по стране. По оцен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мощь получают около 160 ты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молодёжи с доходом менее 1 млн 200 тыс. вон (1.025 долларов). Помимо ежемесячных выплат, молодёж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специальные кредиты. Субсидии получают также малые и средние компании, чтобы побудить их создавать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молодёжи.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тменены проверки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на вакцинацию от COVID-19

На таком решении настоя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связи с улучшением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регионе.

— За последние недели мы существенно приблизились к достижению коллективного иммунитета. Это произошло благодаря сознательности наших жителей. Было бы неправильным в ситуации улучшения эпидемиолог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проводить проверки сахалинских и курильских предприятий. Вакцинация — дело добровольное. Если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лишний раз не беспокоить людей по этому поводу — нужно ей пользоваться,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К сегодняшнему дню иммунную защиту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получили 53 процента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Лечение от COVID-19 проходят 1,6 тысячи человек, 500 из которых — в стационаре. На островах создан запас вакцины от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в размере 46 тысяч доз.

Напомним, ранее с предложением сдвинуть сроки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верок на предмет вакцинации трудов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ыступил депута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Думы РФ Георгий Карлов. Инициатива была поддержана губернатором Валерием Лимаренко.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встретился с членами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диаспор обсудили совместную работу в рамках содействия этнокультурному многообраз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ый и многоконфессиональный регион России. На островах в атмосфере дружбы и согласия проживаю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110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Национальн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нимают самое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работают с детьми и молодежью, вносят вклад в реализацию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х проектов, — сказа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Ассамблея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а создана в 2014 году. В ее составе — 15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При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ы проводим Дни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 армянской, татарской, киргизской. Мы помогаем готовить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День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Члены Ассамблеи регулярно заявляются на гран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направлению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и выигрывают, — отмети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Ассамблеи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айя Кириллова.

На встрече общественники задали вопросы о поддержке нац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пример,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рмения — община «Айк» Давид Амбарцумян рассказал,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несколько лет работает армянская воскресная школа.

— Дети изучают литературу, историю, занимаются хореографией, вокалом, боксом. Ребята выступают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в разны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и завоевывали призовые места. Хорошо, если бы у нас появилась возможность поощрять преподавателей, — обратился он к первому заместителю губернатора.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отметил, что проекты, обладающие большим положительным социальным эффектом, получают грантовую поддержку.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гают правильно оформить заявки и консультируют по вопросам получения грантов. Не менее важно для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За большо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чали вручать памятные знаки «В честь 75-ле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этом году Ассамблея выиграла грант в размере 1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Благодаря такой поддержке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фестива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Музыка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 1 по 7 октября состоятся Дни арм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вященные 100-летию пяти великих армянских композиторов. 15 октября пройдет круглый стол «Культура — нить, связующая разные национальности и вероисповедания». 29 октября в Корсакове и 30 октября в Холмск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концерты национальны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Также на встрече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развития национальных видов спорта и поддержки национально-культурных автономий.

Сахалински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глашают 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Заявки принимаются с 1 сентября по 15 октября. Гранты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азыгрываются по 11 направлениям: социальное обслуживание, социальная поддержка и защита граждан; охрана здоровья, пропаганда здорового образа жизни; поддержка семьи, материнства, отцовства и детства; поддержка молодежных проектов; поддержка проектов в области науки, образования, просвещения; сохранение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защита прав и свобод человека, в том числе защита прав заключенных; охрана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защита животных; укрепление межнационального и межрелигиозного согласия; развитие

общественной дипломатии и поддержка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развитие институтов гражд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а.

Чтобы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конкурсе, некоммерческим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нужно предоставить в Фонд президентских грантов заявку в электронной форме.

С условиями участия можно ознакомиться на сайте: президентскиегранты.рф.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информация — по телефону: +7(495)150-42-22 и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office@pgrants.ru.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щь в подготовке пакета документов и оформлении заявки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ресурсном центре: 8(4242)42-42-30, i.korzхова@sakhalin.gov.ru.

Гостиничный комплекс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обеспечит работой 500 курильчан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заключено в первый день работы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на Русском острове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руководители компаний «ВЭБ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Васта Дискавери».

—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становится все более популярны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Поток гостей с каждым годом увеличивается. В результате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ля наших земляков, растут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 Но одних природных красот для массового туризма мало. Важно создать качественную индустрию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т условия для комфортного отдыха. Поэтому инициатива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на Итурупе получит нашу поддержку, — сказал гл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Ориентал Резор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инвестиции в объеме более 2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Кроме гостиницы, на острове будет создана серия объекто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 экотропы, смотровые площадки, обустроенные горячие источники, горнолыжный комплекс.

Компании «ВЭБ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 «Васта Дискавери» займутся работой с инвесторам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оставлен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й мастер-план территорий будущего объекта. Следующий шаг — проработка эскизов и проект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 Комплекс «Ориентал Резорт» планируется возвести в абсолютно уникальном месте, где на одной территор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 главные туристически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вулканы, водопады, озера, горячие и минер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Здесь возможно развивать такие виды туризма, как природный, горный,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ий,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круизный, экспедиционный. Уверен, что реализация данного проекта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о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гиона, раскроет его мощный потенциал,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Васта Дискавери» Сергей Бачин.

Планируется, что работы по созданию гостини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удут полностью завершены до 2025 года.

Зимние чартеры привезут туристов на Сахалин

В рамка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дписал соглашение с Ростуризмом и компанией «TUI Россия». Локомотивом зимнего отдыха на Сахалине станет крупнейши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портивно-турист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 Летняя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полетов позволила сделать поездки на Сахалин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Этой услугой воспользовались 3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Запуск зимней программы позволит гостям увидеть абсолютной другой Сахалин. В связи с постоянным ростом турпотока мы строим отели, развиваем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 2022 году заработает современный терминал в аэро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что даст возможность в разы увеличить пропускную способность воздушных ворот региона,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Губернатор также отметил, что туризм может стать мощным драйвером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Каждый гость оставляет деньги не только турфирме и авиакомпаниям, но и местным гостиницам, ресторанам, магазинам, туроператорам. Развитый туризм означает развитие индустрии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что влечет за собой создание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в сфере услуг и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Благодаря федеральным мерам поддержки у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ов большие шансы стать туристической Мекк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о словам главы Ростуризма Зарины Догузовой, сейчас создаются условия, чтобы жителям России было удобно открывать для себя раз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ля отдыха в стране — не только юг, но и отдаленные регионы.

—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этого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раны Ростуризм запустил субсидию, которая позволит туроператорам формировать новые предложения по доступной цене. Чартерами на Сахалин мы открыли летний сезон, и это стал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уристическим событием. Программа пользовалась популярностью и получила высокую оценку наших туристов. Потенциал региона, современн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позволяет развивать туризм в регионе круглый год. Следующие чартерные рейсы на Сахалин полетят уже этой зимой,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а Зарина Догузова.

В рамках летней чарт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выполнено 10 авиарейсов. Среди пассажиров рейсов были и сахалинцы, которые приобрели туры в Москву от «TUI Россия».

— Летняя чартерная программа стала успешной. Воз-

душные суда вместимостью 340 мест летали со 100-процентной загрузкой. Сейчас мы приступили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зимних туров на Сахалин, ведем переговоры с партнерами, 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рограммы для туристов будут опубликованы на нашем сайте. Безусловно, туристов на Сахалине ждет много ярких впечатлений. Любители горных лыж оценят трассы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которые признаны одними из лучших в России. В программах предусмотрены экскурсии, чтобы гости смогли увидеть Сахалин в зимнем убранстве — полюбоваться на застывшие ледопавы,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подледную рыбалку. И, как известно, Сахалин славится морепродуктами и блюдами, в которых переплетаются кулинарные традиции России, Японии и Кореи,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TUI Россия» Тарас Демур.

Стоимость туров на 7 ночей будет начинаться от 40 тысяч рублей за человека. Эта цена включает перелет, проживание, трансфер, экскурсии по программе. Как и летом, туроператор подготовит программы в разном ценовом сегменте — «Лайт», «Стандарт» и «Макси». Старт зимней чарт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 Сахалин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декабрь 2021 года.

В Корсакове будет создан рыбный порт

Годовой оборот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составит около миллиона тонн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в год. Появление на Сахалине такого крупного объекта соз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обеспечит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местный и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ы. Реализацией проекта займется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рктик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мпании «Гидрострой» и «Антей Управление Активностям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подписано на полях Восточ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е моря — один из самых богатых районов Мирового океана. Только сахалинские рыбаки добывают в год более 600 тысяч тонн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Но из-за нехватки современных мощностей по приемке, переработке и хранению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уловы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уходят в иностранные порты, например, в корейский Пусан. Логистический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й центр в Корсакове поможет вернуть отечественный бизнес на российскую территорию, на Сахалин. Вместе с ним придут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 получит развитие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ая база,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развитие глубокой переработки водны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базе действующего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будет вложено 7 млрд рублей. В состав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войдет рыб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й завод мощностью до 100 тысяч тонн го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в год, жиромучной завод, холодильники на 10 и 5 тысяч тонн, грузовая контейнерная площадка и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здания.

Рыбный порт поможет улучшить снабжение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рами моря. Единая электронная торговая площадка «Рыбная биржа» соберет заказчиков и поставщиков морских биолог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и рыбной продукции. По расчетам специалистов, годовой оборот будет достигать одного миллиона тонн.

Создание логистического рыбного центра — составная часть масштаб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 модернизации морского порта Корсаков. В 2027 году транспортный узел должен превратиться в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глубоководный хаб с волнозащит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полного профиля и контейнерным терминалом.

Отметим, что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целен на приоритетное развитие в на островах производств, не связанных с добычей нефти и газа. Появление таких крупных проектов позволит диверсифицировать областную экономику, защитить ее от колебания котировок на нефть и газ.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ответит на вопросы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прямом эфире

Прямая линия губернатора состоится в следующую пятницу, 10 сентября, в 15.00. Трансляция пройдет на телеканале «ОТВ-Сахалин», а также в аккаунтах главы области и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в YouTube и Instagram.

В ходе прямого эфира будут озвучены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е и интересные вопросы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Их можно задать по телефону: 8-4242-67-03-91. Кроме того, обращ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в текстовом или видео форматах с пометкой «прямая линия» через социальные сети.

Вопросы можно оставить в личных аккаунтах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limarenko_official/);

— Facebook (<https://www.facebook.com/valery.limarenko/>);

—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ok.ru/valery.limarenko/>);

— ВКонтате (https://vk.com/limarenko_official).

Также обращения принимаются на страницах Центра управления регионом:

— Instagram (https://www.instagram.com/tsur_65/);

— Одноклассники (<https://ok.ru/tsur65>);

— ВКонтате (<https://vk.com/tsur65>).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오는 9월 7일 온 · 오프라인 동시 개최

전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 약 136명 온 · 오프라인 형태로 참여

미래 동포사회를 이끌어갈 전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 136명이 참여하는 '2021 세계한인 차세대대회'가 오는 9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제주도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다.

※ 주최 : 재외동포재단

'한인 차세대, 세계를 위해 나아가다'라는 슬로건 아래 27개국 136여 명 한인 차세대가 참여할 예정이다.

본 대회는 영 킴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강형원 칼럼리스트의 특별 강연, 전후석 감독과 아론 김 작가의 문화콘서트, 홍익포럼, 국무총리 간담회, 지역회의 등을 통해 세계시민으로서의 한인 차세대의 역할과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 진행되는 만큼 참가자들 간의 원활한 연택트 네트워킹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네트워킹 라운지와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FLC시네마, 차세대단체를 소개하는 FLC아카이브 등의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 FLC : Future Leaders Conference

김성곤 이사장은"글로벌 코리아로서 한인 차세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번 대회를 통해 차세대들이 코리아이자 글로벌 시민으로 서 비전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장소 서울로 변경

대전광역시에서 서울로 개최 장소 변경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올해 10월 19일(화)~ 21일(목)까지 열리는 제19차 세계한상대회 개최 장소를 대전광역시에서 서울특별시(잠실 롯데호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년도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대전광역시와 공동주관으로 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대전광역시는 최근 대전 지역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진자 증가로 인한 행사 개최 부담 등의 사유로 지난 8. 20. 최종적으로 공동주관 개최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8. 27. 제38차 세계한상대회 임시 운영위원회를 열고 기존 계획대로 제19차 세계한상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되, 개최 장소를 서울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다.

금번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한 해외 운영위원은"금번 19차 세계한상대회는 이미 코로나19 상황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재외동포재단 등 영사무국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의 갑작스러운 공동주관 개최 철회는 무척 실망스럽다. 지자체가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이렇게 취소한다는 것은 재외동포를 경시한다고 느껴져 못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행사 일자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유례없는 공동주관 지자체의 개최 철회 의사로 인해 준비과정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9차 세계한상대회는 한상경제인들의 대표적인 행사임에 걸맞게 내실있게 준비하고 있다. 우수한 한상바이어와 국내기업을 초청하고, 한상포럼, 기업수출상담회, 기업IR, 세미나 등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좋은 콘텐츠들로 가득 채울 예정이며, 화상 참석과 실시간 라이브방송이 가능한 비대면 온라인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한상대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ручил увеличить субсидии для частных детских садов

Такое решение было принято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и Александром Калининым –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российск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малого и среднего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Опора России».

– Деловое сообщество играет огромную роль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азвитие малое и средне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о – это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высокое качество услуг за счет здоровой конкуренции,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молодежи, стабильные налоговые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юджет. Обратная связь с бизнесом очень важна, на встречах мы в формате открытого диалога можем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волнующ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На встрече директор частного детского сада Юлия Платошина попросила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увеличения субсидий для бизнеса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 С помощью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и государства мы покрываем расходы на аренду, покуп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обучение педагогов. В области сейчас хорошо развит этот сегмент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тва, что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сокращении очередей в детские сады, – рассказала Юлия Платошина.

Губернатор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 При формировании бюджета на следующий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увеличить сумму субсидии до 1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на 2,5 миллиона больше, чем в 2021-ом. Финансовая поддержка оказы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по лин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но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этом году субсидии получили уже 11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 сфере дошкольного 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Родителям, чьи дети посещают частные учреждения, предусмотрена компенсация – 10 тысяч рублей ежемесячно. Такой мерой поддержки пользуются 627 сахалинцев –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бизнеса просили помочь с оформлением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размещением наружной рекламы, подключением к газу. Рассматривался вопрос о снижении налоговой нагрузки на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демонстрирует хорошие темпы роста.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ом разработана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ы видим, что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нацелены на развитие. Но без решения частных вопросов не будет общего движения вперед.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тоже понимает это и ведет открытый диалог с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ями. Поэтому я призываю сахалинское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 активно принимать участ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Здесь есть множество направлений, куда можно приложить свои силы: строительный кластер, лесопереработка, логистика, альтернативная энергетика, креативные индустрии,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Калинин.

Напомним, деятельность «Опоры России» направлена н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с которыми сталкиваютс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в своей повседневной практике ведения бизнеса. Во всех 85 субъектах РФ создано более 400 отделени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Она объединяет 400 тысяч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создавших 5 миллионов рабочих мест. Пр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м участии «Опоры России»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и принят ряд федеральных законов, важных для делового сообщест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год планируют производить 30 тысяч тонн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го водородного топлива

На VI Восточном экономическом форум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ыступил на пленарной сессии «Здоровые амбиции: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рывных проек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редставил проект по созданию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на Сахалине.

Развитие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с низким или нулевым углеродным следом выбрали ведущие страны АТР – Япон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итай. Как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меет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е преимущества на этом новом и перспективном рынке.

– Первое – это близость к потребителям. У нас выгод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ложение для транспортировки водорода. Этот фактор будет влиять на его конечную стоимость, потому что на транспортировку и хранение приходится примерно половина цены водорода. Второе – наличие ресурсной баз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газодобывающий регион. У нас есть необходимые природные ресурсы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водорода. Третье – высок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была первой в России по созданию отрасли СПГ. Для нее тоже характерны криоге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сложная автоматика, высокие требования безопасности,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ие проекты нашли отражение в утвержденно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концепции развития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страны, в части создания Восточного кластера.

По кажд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уже предпринимаются конкретн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шаги. Подписано и реализуется соглашение с «Росатомом» и Air Liquide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а Сахалине завода по крупнотоннажному производству водорода. По проекту завершается разработка техник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обоснован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одписание соглашения с «Газпромом» о выделении метана в качестве ресурсной баз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проекта для производства 30 тысяч тонн водорода в год.

На полях ВЭФ подписан меморандум с Митсубиси Корпорейшн о разработке технологий по утилизации и переработке CO2 в рамках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на Сахалине.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риентирован не только на экспорт, но и на формирование экосистемы внутреннего потребления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ой энергии. Один из таких проектов – применение водорода н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м транспорте, который совместно реализуют на Сахалине РЖД, «Росатом» и «Трансмашхолдинг».

На полях ВЭФ подписали меморандум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оруме экологич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крупные компании – КАМАЗ и ГАЗ –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 планы по автомобильным водородным платформам: грузовикам и автобусам.

Реализация таких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х проектов должна поддерживаться развитием научной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базы, опережающей подготовкой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кадров.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формируется центр компетенций по перспективным энергетическим системам.

Подписано соглашение с ГАЗПРОМ ВНИИГАЗ, университетом нефти и газа имени Губкина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программ в области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Подготов-

ка студентов в Сахалинск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стартовала в этом году.

Как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азвитие новой водородной энергетики положительно скажется на экономике области и качестве жизни людей. Будут созданы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улучшится экология, областной бюджет получи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поступления.

Общественная палата назвала тройку номинантов на ежегодную премию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Среди 12 заявок от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эксперты выбрали трех финалистов, которые прошли в заключительный этап конкурса. Победителя в номинации «Обществ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определят на народном интернет-голосовании.

Как сообщили в оргкомитете конкурса, финалистами стали трое руководителей социаль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некоммерчески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ятельность которых направлена на укрепление семейных ценностей, гармон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духовно-нравственно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 Общественники – это те, кто работает в свободное от основной работы время, они находят время в отпуске, на выходных, вкладывают не только свои душевные силы, но и матери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Конечно, когда этих людей отмечают в таких значимых конкурсах как «Сахалинский маяк», для них это очень важно.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подтверждает, что работа, которой они занимаются, значима для всего общества. Это то самое признание, которое дает мотивацию и дальше приносить пользу, помогать, это то, что их поддерживает и вдохновляет, – отметил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Иконников.

Один из финалистов – директор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Софийский центр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духов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Алексей Шустин. Он также является настоятелем Храма Вознесения Господня, руководителем Семейного объединения «Русская классическая школа», учредителем, директором автономной некоммерче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 социальной помощи «Добрые руки».

Еще одна финалистка – Ольга Цырендоржиева. Она руководит Сахалинской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Землячество Бурятии Байкал», а также является членом Общественной пала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рганизация Ольги Жундуевны вед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направлении гармонизации межнацион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в регионе, а также сохранения и защиты самобытности и языков народ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Третьим финалистом стала Гульнур Минькова –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держки и защиты отцовства, материнства и детства «Семейная Азбука». Деятельность организации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Гульнур Витальевны направлена на информиров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будущих и состоявшихся родителей в вопросах сохранения и укрепления их здоровья и здоровья их детей, пропаганду грудного вскармливания, а также на повышение квалификации сотрудников учреждений родовспоможения и детств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사할린 경찰들, 고아원 학생들을 위한 이벤트 하여

'남의 아이는 없습니다.'라는 표어로 사할린의 경찰과 사할린주 러시아 내무부 산하 사회협회의의 활동가들이 크라스노고르스크 고아원 학생들을 위해 여름 끝 무렵 이벤트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신학년이 시작되기 전 학생들을 위해 청소년 세대의 애국심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러시아 내무부 사할린내무국 국장이자 경찰 대령인 아르센 이사굴로브가 학생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식의 날을 축하하며 주어진 학업에 충실할 것과 올바르게 살길 기원하고 사할린 경찰을 대표해 학생들에게 학용품을 선사했다. 여러 부서의 직원들은 어려운 생활환경에 처한 학생들이 본격적인 학교의 교육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학교 갈 준비를 돕자' 전 러시아 자선 행사의 일환으로 모처럼 학용품을 모았다.

이어 학생들은 '푸쉬스틱' 간이 비행장 견학을 떠났다. '파트리오트' 군 애국공원 지도부는 이들의 행사 참여 요청에 흔쾌히 응하여 경찰 직원들의 자녀들과 고아원 학생들을 위한 유익한 역사문화 견학을 조성했다.

학생들에게 군사 장비들을 보여주며 그 기능을 설명하고, 실제 병력수송장갑차가 어떻게 운행되는지 보여주고, 직접 전

투 차량에 앉아 운전대를 잡아보며, AN-2 전투기의 조종대를 잡아보기도 했다. 이후 학생들을 재구성된 대조국전쟁 당시 유격대 마을로 인도해 병사들의 최전방 생활과 군병원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해주었다.

애국적 행사를 맛있는 점심으로 마무리한 가운데 학생들의 방문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따뜻한 야전 메밀밥을 학생들은 즐거이 맛보았다.

정기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행사들을 사할린의 경찰 직원들이 진행하고 있다.

행사의 주요 목적은 정신적, 애국적 교육 및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준법적 자세를 확립시켜주는 데 있다고 사할린 내무국 홍보실이 밝혔다.

Сахалинские полицейские устроили праздник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ого дома

"Чужих детей не бывает!" — под таким лозунгом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и и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строили праздник уходящего лета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Красногорского детского дома. Перед началом учебного года для ребят организова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правленную на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подрастающего поколения.

Дети встретились с начальником УМВД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лковником полиции Арсеном Исагуловым, который поздравил ребят с наступающим

Днем знаний, пожелал им прилежно учиться и хорошо себя вести. От лица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и он вручил им подарок со школьными принадлежностями. Сотрудники различных подразделений специально собрали их в рамках всероссийской благотворительной акции "Помоги собраться в школу", чтобы дети, попавшие в сложную жизненную ситуацию, могли полноценно приступить к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у процессу.

Далее ребят ждала поездка на аэродром "Пушистый". Руководство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парка "Патриот" с радостью откликнулось на просьбу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акции. Для воспитанников детского дома и детей сотрудников полиции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сыщенная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ая экскурсия. Юным гостя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военную технику, рассказали о ее функционале, показали, как ездит настоящий БТР и даже позволили посидеть за рулем боевых машин и штурвала самолета AN-2. Затем ребят провели в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ную партизанскую деревню времен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рассказали о фронтовом быте солдат и работе военного госпиталя.

Завершился патриотический праздник вкусным обедом. Ребята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попробовали горячую полевую кашу, приготовленную специально по случаю их приезда.

Мероприятия подобного формата на регулярной основе проводятся сотрудниками сахалинской полиции. Главная их задача — духовное и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и формирование законопослушного поведения у детей, находящихся в социальной зоне риска,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УМВД.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АХКОМ ЕДА

Ваш сервис для заказа вкусной еды

Наши преимущества:

- У нас большой выбор заведений
- Удобная разбивка по категориям
- Популярные блюда



- Информация о скидках и акциях в заведениях
- Понравившийся заказ легко повторить
- Сортировка заведений по отзывам и рейтингу



91
ЗАВЕДЕНИЕ



684 200
ЗАКАЗОВ



105 800
ПОЛЬЗОВАТЕЛЕЙ



28 075
ОТЗЫВО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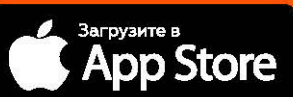
Вы можете заказывать



на сайте
eda.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eda.sakh.com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 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